

# 建築士. 建築家와 Architect



姜 明 求

## 1. 建築士の資質을 確立 시키라

建築士에 對한 社会的 認識度나 地位 報酬 또는 人格과 技術向上을 爲하여 努力 해온지 벌써 10年이 되도록 우리의 發展을 妨害하고 있는 要素와 마음 한 구석에 도사린 釋然치 않은 여러 問題들 가운데서도 가장 根源的인 것으로 생각되어 오던 것은 建築士, 建築家와 Architect 등의 同類 近似職名에서 오는 誤解, 不一致感 또는 問題點等에 對한 所感을 提言코져 한다. 建築家와 Architect는 同意語이긴 하나 우리나라에서 現在까지는 이것이 一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日本人들이 지은 建築士라는 말과 Architect도 마찬가지로 一致하지 못하므로 因한 여러가지 職名에서 오는 自體의 混亂이 社會에, 또한 外國에 까지 反映 되므로써 돌아오는 被害返響은 어떠한지도 反省해 보아야 하겠으며 또한 우리 自身들의 職名이기에 오히려 無關心 하였던 建築士, 建築家, Architect라는 말의 遺來도 좀 더 正確히 하여 들 必要가 있다고 하겠다.

近來 우리나라에서의 建築家라는 말은 하나의 職業名으로 使用되는 것이 아니며, 廣意的인 解釋으로는 學校의 建築科를 卒業하였다거나 또는 建築設計에 從事하고 있는 사람들(外國에서는 Architect, Drafts man, Engineer 등으로 完全히 区分되어 있는데, 이런 職別의 全部를 말하는 듯)이 自尊의 뜻으로 自稱 使用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建築家를 그대로 Architect로 번역을 하면 外國人에게는 올바른 傳言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外國에서의 Architect는 國家가 認定한 自由職業의 資格으로, 醫師나 辯護士와 同一한 性格의 것이다. 醫師, 醫士; Dr와 같은 類似名稱도 없을 뿐만 아니라 大學의 法科나 醫科를 卒業하였다고 醫師나 辯護士의 名稱을 쓸 수도 없으며 이를 違反할 때에는 法律로 処罰을 받게 되어있다. 이러한 自由業은 個人, 法人 또는 官庁의 利益을 專門家로서 解決해 주고 그 代償으로 報酬를 받는 점에서 다 같다 하겠다. 어느 職業이나 國家에서 그 能力과 經驗이 一定한 規準에 到達된 사람에게 그 職業稱號와 開業을 認定해 주는 것은 어느나라에서나 同一하나 實質的으로 우리나라의 建築士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것 같다. 우리의 建築士는 國際 建築家 聯盟(U. I. A.)會員도 못되고 있으며, 既得權에 依한 無能力者가 1級이 되어 있는가 하면, 1級 보다 實力이 越等한 2級 建築士가 수두룩한 點等等이다. 한편 韓國 建築家協會會員이 아니면 外國에서 行해지는 懸賞設計의 參加資格이 없는가 하면 建築家協會에는 國家認定의 建築士도 아닌 사람이 會員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建築士協會를 英文으로 表記할 때에는 『韓國에 登錄된 建築家協會』로 붙여야 하는 點等 역시 무엇인가 複雜하고 混亂된 印象이 外國에 까지 비추이는데에 錯雜한 마음 禁할 길 없다. 要는 內實의 問題가 더욱 重要하기 때문에

모든 힘을 합하여 正常軌道에 올려 놓아야 할 일로 본다. 日本에서도 數年前 國際競技의 設計參加資格이 問題가 되어 建築家, 建築士 또는 Architect의 國際的 解釋에 큰 論難이 일어난 일이 있다. 앞서 말한바도 있지만 建築家를 Architect로 간단히 譯하는 것은 크게 잘 못이며, 同時에 그 団体들 까지도 問題가 되던일이 생각된다.

日本建築家協會에서는 會員詮衡에 있어 外國에서도 通用될 수 있는 意味로서의 Architect를 會員資格으로 하고 있음으로 外國에서 Architect의 資格問題가 생길 때마다 建築士協會會員이 Architect로 認定을 못받은 때가 있었다. 이러한 것은 建築士法の 未備와 建築家 내지 Architect의 認識不明等에 依한 것이며, 이것이 外國에서 보면 Architect의 職業團體가 어느 것이 正統的인 것인가를 分間하기 어렵게 했을 것이다. 우리의 建築士協도 10년이 되도록 이러한 問題點을 지니고 있기에 早速히 外國에서도 通用될 수 있는 Architect로서의 建築士로 實質的인 資質을 確立 시켜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 2. 史蹟으로 본 建築家像

韓國 建築史에 남을 훌륭한 古建築들은 勿論이며, 西紀 607年頃 百濟에서 건너가 建造한 日本 奈良 法隆寺의 建築이 藝術的이라는 外形的 讚詞와 함께 木構造로서는 世界에서 가장 오래된 建物인 文化財로서도 널리 宣傳되어 있으나 그 훌륭한 藝術作品을 누가 設計 했으며 그들의 職責과 待遇, 또한 設計監理方式等에 關한 內的인 重要한 記錄이 남지 않아 建築家에 關한 이야기를 하려면 西洋史에 남은 建築家들을 例로 들 수 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앞선다. 에짚트에는 古代로 부터 建築家가 存在 하였던 記錄이 남아있다. 에짚트에서 “人格이 尊嚴하다”는 말은 建築家를 뜻하였다. 하며, 建築家는 大概 王의 血族이 아니면 될 수 없는 職責이며, 世襲的인 家系로 이어졌고, 그 血統에서 彫刻家나 画家, 詩人等의 藝術人이 輩出 되었다 한다. 古代 希臘에서는 “建築家이며 藝術家”라는 單語가 實在 하였고, 이탈리아의 建築家(architetto)라는 語源도 勿論 希臘語의 Arkhos(長)-tektion(匠人)에서 나왔음을 틀림없다. 公共建物에 關與하는 建築家나 工事監理長 은 그 當時에는 國家의 가장 높은 要職으로 推重 되었었고, 現在까지 遺物로 남아있는 王들의 生活風習과 함께 壁에 浮彫된 建築家의 作業하는 記錄面에서 施工用 現尺圖作成의 場面을 볼 수 있다. 그리스 文化의 黃金時代(B. C. 500)가 되면서 부터 建築家의 職名이 彫刻家나 請負業者等과 明確히 区分 되기 始作했다. 아테네의 파르테논 神殿(B. C. 438完工)은 이를 設計한 建築家 Iktinos와 함께 彫刻家 Pheidias와 技術者인 Kallikrates가 施工者로서 協力한다. 이러한 그리스의 建築家가 후에 로마의 建築을 도맡

은 史蹟이 남아 있다. 로마에서도 建築家가 생기기 始作 하였으나 그때부터 建築家는 高貴한 世襲에서 自由人에게로 넘겨졌다. 特히 異色的인 것은 스스로 建築家로 自稱한 皇帝 Adriana(117-138在位)로서 그는 廣大한 宮城과 別莊等을 直接 實施 하므로서 傳統的인 建築家의 地位를 다시금 높히게 하였다. 로마人은 元來 土木技術에 能하여 築港術과 道路는 有名하였고, 特히 그들이 架設한 水道는 오늘날 까지도 로마市內의 數千의 噴水에 물을 뽑고 있다. 그밖에 큰 Span의 트라스를 構築 한다든지 아-취 天井의 Vault技法, 로-마 시멘트의 發見等으로 大寺院 建築을 完成한 有名한 建築家들이 많았으나 로마帝國의 滅亡으로 寺院의 聖職者들이 建築家를 代身하다 13世紀 以後에 建築家職은 그들 僧侶로부터 一般社會人에게 다시 넘어 오지만 “工事의 長”이라는 職名으로 모든 匠人(職工)을 指揮하는 arkhos-tektion이라는 職業이 된다. 報酬가 定해 졌으며 見積, 予算作成, 工事契約을 締結 시켜주는 責任까지를 다 하였다. 그 時代의 建築家의 이름이나 胸像이 寺院의 中心廊下에 刻書나 彫刻으로 또는 石棺에 지금까지 남아 내려오는 것을 보면 얼마나 建築家들이 尊敬을 받았던가를 알 수 있다. 그后 建築家의 地位는 漸次 底下하여 王侯나 큰 寺院의 僧侶가 直接 石工과 木手, 彫刻士, 鉄工等과 部分 工事契約을 하며, 建築家는 相對하지 않았던 時期가 있었다. 그러나 15世紀 렌스 大寺院의 火災復旧工事에 部分別請負式으로 石工, 木工, 鉄工等에게 各各 請負를 시켰으나 各職種間의 工事連絡과 秩序 그리고 構造上의 配念과 比例上으로도 옛날의 아름다운 調和를 잃고 만 것은 더 할 나위 없게 되었다. 이러한 非文化的인 建築界를 다시 是正하고 建築作品에 藝術的인 調和와 施工上의 秩序를 찾는 데에 깊은 思慮와 威嚴 있는 命令으로 모든 施工을 制御할 수 있는 建築家가 나타났다. Philibert Delorme(1515~1570)이 다시 低落된 建築家의 職責을 옛날처럼 되찾은 일이다. 같은 時期 덴마크의 首都 코펜하겐에서도 王이 漁民을 위한 아파트를 손수 設計, 施工監理한 3層 아파-트가 現在도 市內 海岸이 보이는 낮은 언덕위에 서 있는 것을 筆者도 見學하며 感慨無量하였던 記憶이 새롭다. 그런 時期에 다시 프랑스에서 1495年 샤르르 8世의 이태리 遠征後 建築家라는 architetto와 技術者를 分離한 것을 본따 使用하기 始作 하였다. 프랑스에는 처음 建築學校가 세워졌으나 그것은 私塾과 비슷한 것으로 Atelier라고 불리우는 紀元이 되었다. 建築家는 工事의 最高責任者로서 最高의 權威를 지니고 自己計酬을 實施 하지만 金錢上으로는 關與하지 않음은 勿論이며, 売買契約도 避하는 것이 그들의 精神이었으나, 그 때에도 참된 意味로서의 建築家는 드물었으며 金錢에 關與하든지 또는 木手나 石工等이 建築家라고 自稱하며 뒤로는 請負도 맡고 하여 참된 建築家의 威信을 떨어 뜨렸으나 1671年 王立建築學院이 루블宮에 設立되었다. 이것이 오늘날 파리 國立美術院 建築科의 前身이며 1867年 政府

에서 省畧으로 制定한 Diplome 때문인지 프랑스는 勿論 歐美人이 모두 이곳을 唯一한 建築家의 養成과 修業道場으로 認定하고 있었다. 더구나 建築家は 藝術家인 同時에 技術者이며, 實際家로서의 資格까지 갖추어야 하기에 이들 學生에게는 現場實習까지를 義務化시킨 것이다. 이러한 것을 始作한 사람은 Viollet le Duc이라는 建築家로서 建築家의 修業이란 設計는 물론 實地의 經驗과 觀察力의 養成이 不可避하다는 것을 力說한 것은 그 建築家의 힘에 의하였다. 그러나 19世紀 中葉에 와서는 建築職種中에서도 施工・見積・設計等の 区分이 確然치 못하여 混同되기 쉬웠으므로 政府公認의 建築士 DPLG協會를 筆頭로 하여 一般의 建築職協會가 생기기 始作하였다.

이어서 1895年 Julien Guadet (1834-1908)의 發起로 全유럽 建築界에 唯一의 權威있는 建築士의 職責規程으로 世稱『가데의 法規』가 制定돼 明文化되었다. 그에 의하면 “建築家は 比例와 配置와 裝飾을 決定하여 이 企劃圖面대로 實施시키고 그에 要하는 諸經費를 裁制하는 藝術家이다”라고 定義된다. 따라서 建築家は 自由業이며, 非商業的인 性格을 明記(U. I. A. 또는 A. I. A 規約에도 繼承됨)하고 그 職務遂行에 誠實함은 勿論 公正하며 藝術的인 面을 重要視하여야 한다는 職業上의 德義를 具體的인 規則으로 例記하고 있다. 特히 德義心은 모든 職種에 必要한 道德的 義務인 것은 勿論이다. 中世紀 建築이 聖職者로부터 一般 社會의 匠人에게 넘겨진 後 잊혀진 藝術的 調和를 Philibert Delorme이 다시 찾고 로마에서는 建築家인 Adriana皇帝의 이름으로 그 高貴하였던 地位를 다시 찾아 建築家의 名譽를 淸부업자와 區別하였다. 이 傳統이 바로 『가데(Guadet)의 法規』의 條文精神이었다.

(오늘날 우리 周圍의 建築士事務所 着板에 設計, 工事, 請負, 監理라는 矛盾된 廣告에다 地籍圖 靑写真까지 곁들여 있는 것은 그 建築士의 不道德과 營利的인 商業的 行動으로서 이는 建築士의 品位의 遂落을 自招하는 일이다.)

더구나 그동안 그리스 以來 『建築家이며 藝術家』라는 傳統은 文芸復興期의 建築家이며, 画家, 彫刻家인 Brunellesco (1377~1446), 建築家이자 画家인 Bramante (1444~1514)와 Peruzzi (1481~1536), 建築家이자, 兩家이며 彫刻家인 Michelangelo (1475~1564) 등을 거쳐 建築家 Charles Garnier (1825~1898)와 其外에 이어져 내려오며, 建築家란 藝術家이기도 하다는 明確한 定義가 세워졌다. 近來에 와서 學者이고 藝術家인 建築家를 建築士로 한 것은 日本人들이 그 나름대로 建築家라는 그 職責外에 忠義心이 強하다는 ‘사무라이(武士)의 武士의 德義와 높은 人格을 加味하기 위하여 士字로 만든 真義는 어느 程度 理解되나, 역시 日本이 남기고 간 弊風’ 임을 틀림 없다.

### 3. Architect의 姿勢

U. I. A. (世界建築家聯盟)의 1955年 Hague 第4回 總會에서 決議된 Architect의 定義나 A. I. A. (美國建築家協會)가 1950年 施行한 規定에 依하면 建築家は,

첫째로, 不定의 依頼者인 建築主를 對象으로 自營하는 建築家와,

둘째, 俸給을 받고 官公署나 会社에서 設計監理 또는 營膳을 行하는 者.

셋째로, 學校의 建築科에서 建築家를 養成하는 者,

를 말하는 것으로 以上 3種을 美國에서도 建築家로 부르고 있다. 그러나 請負業者로 在職하고 있는 사람중에 以上의 資格이 具備되어 있다 하더라도, 建築家로서의 資格은 傷失한다고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別途의 法的인 拘束은 안되고 있다.) 外國의 例를 보면 Architect라는 타이틀을 名譽로운 職業의 資格으로 名啣에 반드시 쓰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도 A. I. A. 나 R. I. B. A. 또는 B. D. A의 會員일 때에는 이를 名譽로 하여 꼭 적어 넣는다. 우리나라에서는 大概 建築士라는 資格을 자랑스럽게 쓰고 있는 사람이 드물다. 그렇다고 建築家 ×××라는 代替名稱도 公認된 것은 아니다. 一般 社會에서는 漠然히 쓰여지고 있는 建築家라는 名稱도, 어떤 資格基準이 必要치 않는 画家나, 彫刻家, 工藝家, 寫真家 또는 評論家나 作家등과 같이 자유롭게 活用할 수 있다고 同一視하기 쉽다. 이러한 傾向으로 建築家라는 語義는 디자이너나 作家等の 概念에 가까운 意味를 지니게 되었지만 事實은 Architect라는 建築家의 일은 創造的 作業뿐만 아니고, 廣範圍한 責任, 即 完成된 建築의 質과 建築에 投資되는 資金의 기획등에까지 이르는 廣範하고 복잡한 것이다. 特히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한 例로서 地球建築設計事務所라든가 ○○技術開發公社等과 같이 個人名이 아닌 名稱을 붙인다거나 株式會社 ○○事務所 또는 그보다 더욱 權威를 갖추기 위해서 인지 研究所 또는 研究室等の 名稱을 使用하는 것은 營利的이고 一方 營利을 은폐하려는 印象을 나타낼 뿐, 建築家의 威信의 向上은 안되는 일로 外國에서는 보기 힘든 우리나라만의 現象인 것이다. 이것도 Architect의 墮落으로 認識되는데에 一種의 要因이며 後進性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1955年 Hague에서의 U. I. A. 第4回 總會에서 채택된 建築家의 社會的 地位, 建築家의 權利와 義務 가운데서 우리 建築士 協會員에게 권장할 事項만을 參考로 記載하자면 全 12項中에서 特히 아래의 3項을 關心있게 提言하고 싶다.

② 建築家は 依頼人의 利益을 위하여 全力을 다 하여야 하며, 그 職務에 拘束되든지 人類全體를 위하여 拘束되는 일을 하여서는 안된다.

- ③ 建築家の社会活動에 있어서의 發展은 그의 優秀性에 달려 있다. 그는 宣傳을 하든지 不正으로 利益을 取得하여서는 안된다.
- ⑤ 建築家は 그 相互關係에 의하여 芸術家로 認定된 本質에서 他人의 作品을 剽竊하든지 逸脫하여서는 안된다. 等으로 되어 있으며 外国에서는 事實上 이대로 實施되고 있다.

#### 4. 결론적 제언

以上과 같은 建築家の 존엄성과 芸術性에 비추어 볼때 가장 Architect에 가까운 뜻에 建築士가 되어 国内에서의 信賴는 物論이며, 外国에서도 認定받을 수 있는 建築士로 善導하기 위한 对策의 設立과 올바른 報酬의 規定을 政府에 要求할 權利와 함께 建築士의 向上된 知識, 經驗 應用의 完全한 傾注를 義務化시키는 制度를 講究함과 同時に 몇 千年前부터 信賴와 尊敬을 받았던 職業的 權威를 早速한 時日内に 다시 復旧할 수 있는 万全의 努力을 展開하기 위하여 몇가지 提言을 한다.

- ① U. I. A. 나 A. I. A.의 會員會則과 同一한 建築士의 定義를 실천하도록 再教育하라.
- ② 建築士는 請負業을 兼職할 수 없게 하라. (이에는 士法改正이 必要)
- ③ 靑写真, 地籍圖商도 兼業을 금하고, 設計가 副業일 때에는 차라리 協會指定 靑写真業으로 轉業을 勸告 誘導하라.
- ④ 商業的인 宣傳과 廣告를 中止시키라. (이것은 治療에도 反映되 있음) 外国의 建築家 또는 画家나 芸術家は 宣傳을 안하고 있으며 病院에서도 營利目的인 宣傳은 금지되어 있다. 葬儀社의 상업선전도 自律的으로 自重을 하고 있지 않나?
- ⑤ A. I. A. 規定에서와 같이 학교 선생도 建築士의 資格이 있는 사람에게는 作品活動을 허락하라. (教育者가 實務를 떠나는 일은 特히 建築에서는 建築士業種의 中断이라는 모순이 생긴다. 教育者의 建築士·二重職과 靑写真, 地籍圖 그리고 商人의 二重職 내지 請負業과 設計의 二重職과 比할때 그 어느것이 建築士의 權威를 損傷시키는가에 對한 冷撤한 比較 있기를 바란다)
- ⑥ 官厅의 手續을 目標로 하는 設計와 外国에서도 認定될 수 있는 程度의 設計를 製作하는 會員間의 報酬도 漸定的으로 區別하는 制度에 의해 멀지 않아 全會員의 設計에 質的인 向上이 있도록 制度化하라.
- ⑦ 6項이 이루어 질 때에는 1級, 2級의 制度는 撤廢 單一化 하라.

- ⑧ 建築士 個人的 個性에 따른 作品도 重要하지만 依頼者에게 損害를 입히지 않는지를 協會에서 制度的으로 監視하라.
- ⑨ 人類, 都市, 社会 全体를 위하여 柔盾 되는 作品이 아닌지를 全 建築士의 尊嚴性을 위하여 制度的으로 監視할 必要가 있다.
- ⑩ 이밖에도 建築士의 品位向上과 報酬의 適正性을 위하여 取하여야 할 措置를 義務化 할 수 있는 協會運營을 優先하라.
- ⑪ 建築士의 德義와 藝術性의 向上은 地位의 向上과 直結되므로 時急히 協會에서 重点的인 再指導가 必要하다.
- ⑫ 協會의 任員은 奉仕職이므로 本·支部를 莫論하고 往來重任하지 못하는 規定을 세우고 外国에서도 Architect로서 通用 될 수 있는 資格을 具備한 建築士中에서 被任될 수 있도록 하여 全 建築士가 하루 速히 真正한 意味의 Architect的인 建築士가 被選되도록하여 指導, 運營 할 수 있는 制度的인 改革을 勸奨한다.
- ⑬ 建築士라는 日本式的 職名을 Architect로 歸一 될 수 있는 名称인 建築家로 統一 시키므로서 社会的인 混同性을 없애고, 代書士에서 오는 느낌과 같은 建築士 보다 自負心과 職業에 對한 優越性을 自認할 수 있는 方向을 摸索 할 것.
- ⑭ 登錄된 建築家란 英文은 어딘지 異常하다. 建築家이면 그냥 Architect라고만 해도 모든 資格이 具備된 建築家로서 世界 어느 곳에서나 認定 되고 있으므로 13項과 同時に 解決 할 것을 提言 한다.
- ⑮ 建築分野의 二個團體인 学会와 家協會 士協會 가운데서도 建築士協會가 第1 Architect로 通用 될 수 있는 資格과 많은 運用資金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또한 많은 弱點을 內包하고 있기에 10周年이 되는 올해를 契期로 모두 補強整備하여 外国의 Architect와 나란히 설 수 있는 品位와 信賴를 되 찾을 수 있도록 諸般 対応策을 樹立 하기를 바란다.